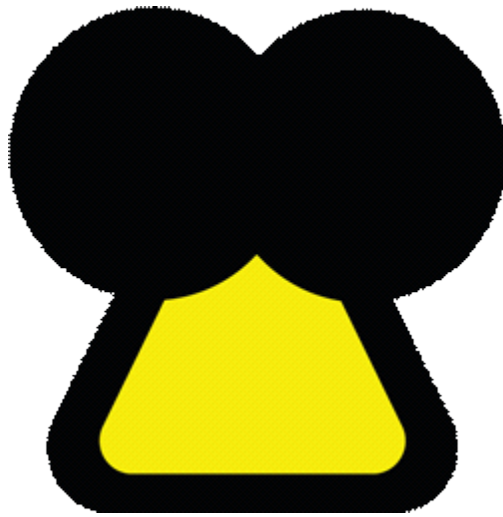




심가연 포트폴리오

2024년 도봉문화재단 / 입주작가 7기 심가연

도봉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

소개

공간대관

프로그램

소식

문의하기

f

@

Q

공지사항

입주작가

예술교육

아카이빙

7기 작가

심가연



심가연

쓰는 사람, 이야기를 그림과 위에 한 권의 책을 만든다.
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의 마음들,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 바라보고 이야기로 만들고 있다.
특정한 물건을 유독 모으는 사람의 내면의 기억을 찾아낸다. 그 물건 자체가 되어 사람이 물건이 되어서 물건의 기분을 글과 그림, 뜨개질로 표현한다



2023년 8월 성북문화재단 / 길음역 공업사

‘뜨개질에서 보낸 한 철’ 책 전시 (개인전)

전시영상 <https://www.instagram.com/reel/CwIKg0ghyKB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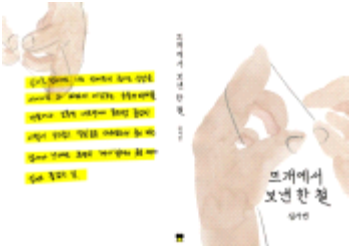
전시 포스터 인스타 홍보 포스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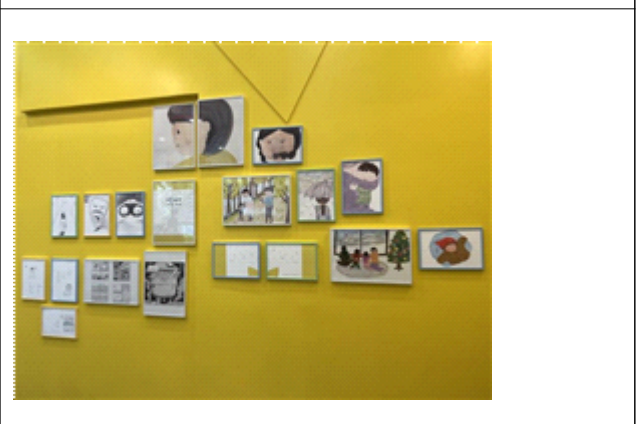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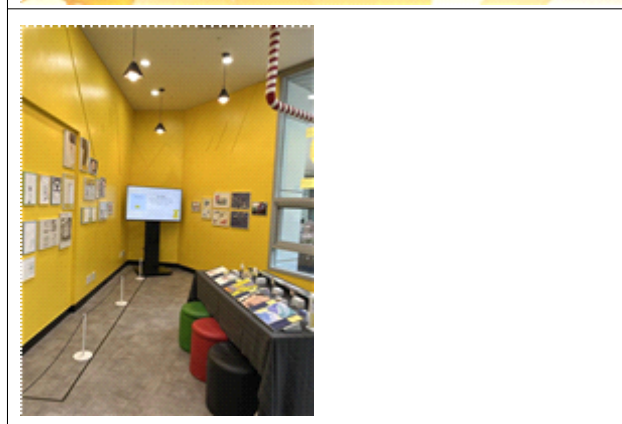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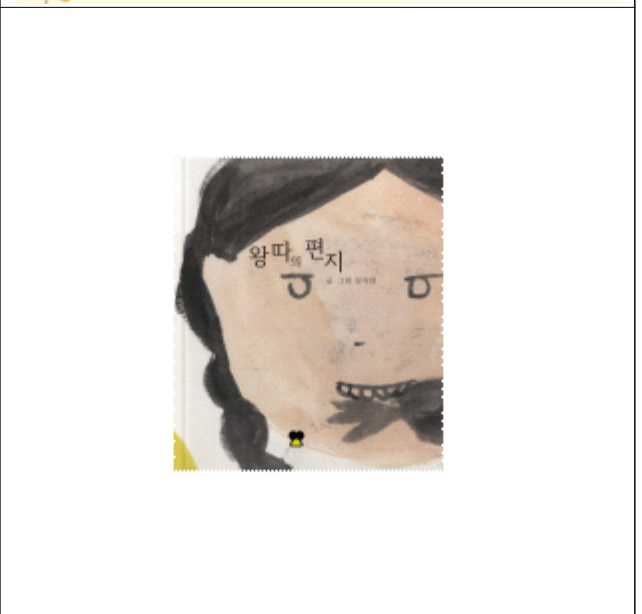
전시 스케치



뜨개에서 보낸 한 철 전시에서 발표한 에세이집 일부내용

	이 책을 쓴 이유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. 나는 2013년 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. 글 쓰면서 먹고 사는 삶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했다. 광고 카피라이터, 독서논술 강사, 취재기자, 사보 기자, 공연기획사 스태프. 게다가 일대일 글쓰기 문학 과외로 지식창업지원금을 받으면 창업생태에 입주하기까지 했다. 창업센터 지원금이 만료되는 2015년 3월을 내 마음 속에는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. 그 당시에는 글쓰기 과외로 5명 남짓한 사람들과 과외를 하고 있었지만 불규칙한 생활패턴, 불규칙한 외주 일로 인해 월도 마음도 망가져 있었다. 정규직이 아닌 회사 사원들이 없는 삶에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였다. 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새벽까지 글을 쓰다가 대낮까지 잠을 자면 그렇게 열대같이 들었다. - 8 -	그 말한 캐릭터 같은 감정으로 잠에서 깨어나 이불에 그려진 장미꽃 패턴을 보면. 어느 날은 그게 별 같았다가 어느 날은 그게 또 다른 형상으로 보이기도 했다. 내가 나로 서 있지 못한 채 결론을 하게 되고. 아이를 낳았다. 어떤 결정을 하거나, 아주 작은 문제들이 닥쳐도 내가 기대고 있던 사람들을 찾았다. 사실은 내 맞이거나 내가 해결 해야 하는 일이거나, 내가 야할 수 없는 일일 뿐인데도 그런 문제들을 어른스럽게 직면하는 일을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제대로 알게 된 셈이었다. 그렇게 두달대만서 두 아이를 키웠다. 어느 날 둘러보니 아무도 더 이상 나를 '괜찮은'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았다. 성취감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.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다운지 생각하며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, 그저 살기 위해서 매일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감정들을 블로그에 적었고,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면 털실을 꺼내서 목표 했던 뜨개 도안을 여러차례 독학하며 하나씩 완성했다. - 9 -
하나의 글을 매듭짓는 일. 필요했던 털모자를 사지 않고 스스로 따서 쓰고 다니는 일은 그 당시 유일하게 내가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던 일이었다. 하지만 뜨개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다보니, 그것도 별이 들었다. 저장장매가 온 것이다. 여름철이면 스웨터 공장에서 재조하고 남은 콘사들이 팔려로 중고나라와 동대문 종합시장에 쏟아졌다. 브랜드 털실이 아닌 1킬로에 만원도 안 되는 털실 덩어리들을 싸다는 이유로 야금야금 사모았다. 그렇게 집안에 털실 덩어리들이 쌓이기 시작했다. 남편이 야근하고, 혼자 아이들을 일주일 내내 집에 갇혀서 보면 무더운 여름철, 유일하게 해매 아저씨가 우리 집 문에 콘사 박스 선물을 두고 가시니. 그런 달콤한 위안을 포기하기가 힘들었다. 나는 그 콘사를 한 가득 가슴에 안을 때, 그 콘사 실타래로 감아 기방에 넣고 다니다 보면 때마다 행복했다.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유일하게 털실이라는 사물이 나를 위로했다. 실은 무엇이든 털	수 있는 내 상상력의 셈이었다. 어디에도 풀 수 없는 그 창작욕을 풀며, 수많은 떠돌이간 뜨개 작품들뿐 이제 우리 집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. 더 실력이 좋아질수록 과거의 뜨개 작품들이 서툴게 보였고, 무겁고 짐스러웠기 때문에 세분하게 된 것이다. 이제는 사조으로만 그 때 그 작품들을 추억한다. 그토록 사들였던 털실들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만 이제는 코백할 수 있다. 그것은 나의 정신병원 같아왔다고. 그 실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미칠 듯이 모르고,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 속에서 두 아이를 지켜내는 순간, 그 암흑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. 그 무시무시했던 지옥의 한 철을 털실과 잘 넘겼다. 물건을 모아야만 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창고와 방을 전부 털실로 채웠던 것을 다시 하나 하나 박스에 담아 중고나라에 팔았다. 그러나 2023년 8월에 예정된 뜨개에서 보낸 한 철 책과 뜨개워크숍 준비를 위해 다시 집안에 콘사로 채워졌다. 사람은 순계 변하지 않는다. 나는 이 저장장매라는 심리적 문제와 늘 싸우며 내 물건을 정리하고, 버리고, 수납하	는 고향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. 그 과정에서 느낀 털실과 저장장매,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를 함께 나누고 싶어 책을 만들었다.

2023.11 돌리뮤지엄 호호호전 도서관화전 (단체전)



마음그림극장 총 5편의 그림책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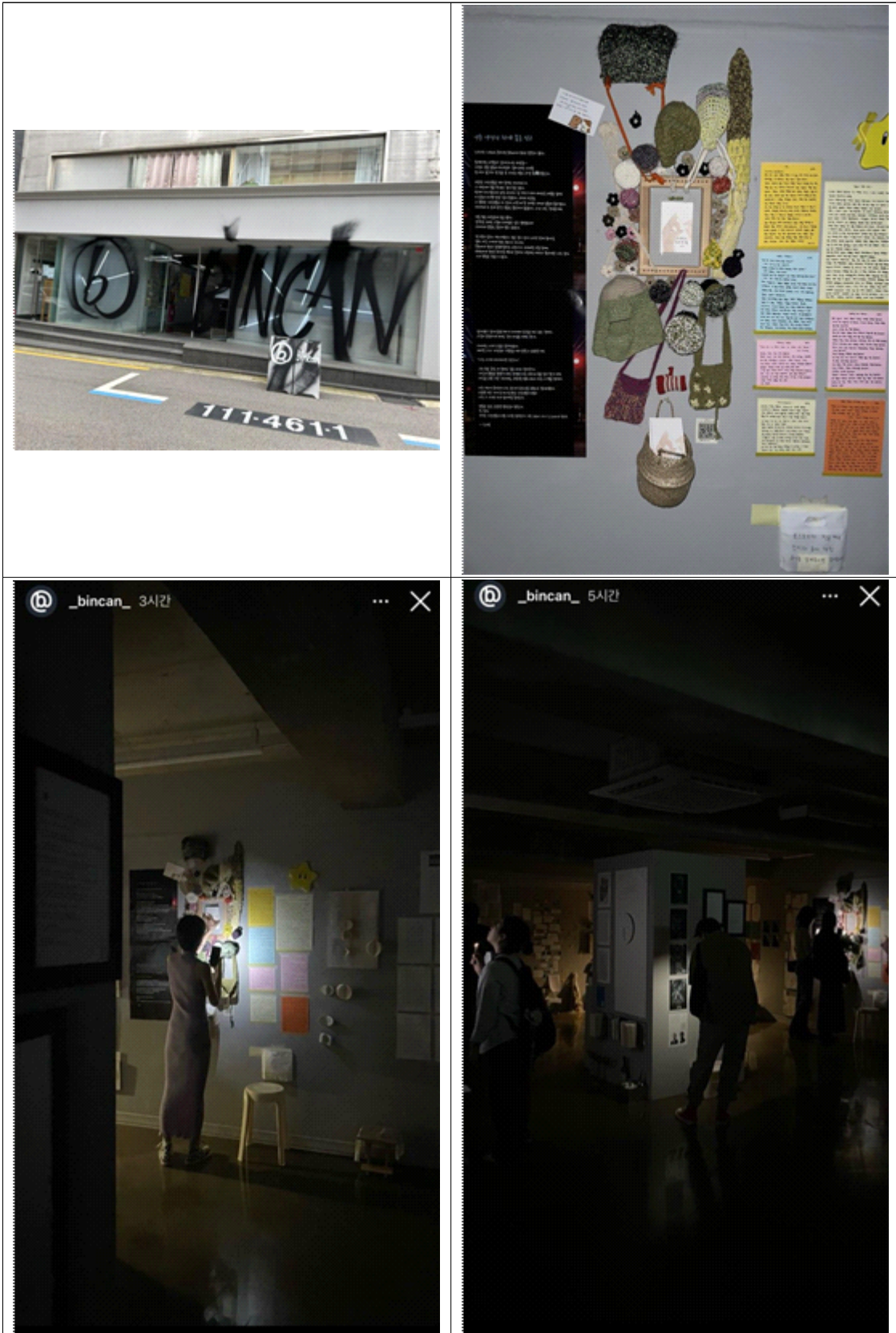
마음그림극장(그림책을 영상작업하여 올려두었습니다.)

1. 엄마놀이 <https://youtu.be/D8pnB-kk7t4?si=i1kFXoPouDPlcfD->
2. 다 숨었으니까 찾아주세요. <https://youtu.be/7uGzdyCEJl8?si=OXI8s0KtQbm3WhTU>
3. 따라 따라 따로 따로 <https://youtu.be/e6RcL0PiHJ4?si=2aDhbqPW7IT4mN-z>
4. 어린왕자의 상자 <https://youtu.be/PtZXvKqSn7w?si=wj2UaNfbNoiFGZmX>
5. 왕따의 편지 <https://youtu.be/j493TITx8YM?si=BI8RG93oa93ox4JP>



→왕따의 편지 내용 중 일부

2023.9.4-24 빈칸 @bincan 압구정 글 단체전 암실 - 뜨개에서 보낸 한 철 전시 참여기록



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 양성과정 인터뷰 영상

2021년 9월 1일~11월 11일 24시수

강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

'강북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<gae모임>'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.

교육 후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업한 영상스케치가 있습니다.

강북문화재단

정찬리 모집장

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

[강북곳골]

11.20(토) ~ 12.11(토) 4회차

프로그램(1) 지금 기분이 어때?

- 진행일시: 11.20(토) ~ 12.11(토) 10:00-12:00
- 진행장소: 동매동사당재(강북구 미아동)
- 모집대상: 초등학교 4-6학년 10명
- 교육장면: 연극(놀이), 시각예술(복아티)
- 커리큘럼
 - (1회차) 일상 사물의 재발견, 사물의 물성을 통한 놀이
 - (2회차) 나와 너는 어떤 감정이 위스할까?
 - (3회차) 감정을 표현법 공유하기
 - (4회차) 나만의 스토리북 만들기

프로그램(2) 내 맘을 보여줘

- 진행일시: 11.20(토) ~ 12.11(토) 14:00-16:00
- 진행장소: 동매동사당재(강북구 미아동)
- 모집대상: 초등학교 4-6학년6보통자 5팀 / 총 10명
- 교육장면: 연극(그림자극), 시각예술(물감주)
- 커리큘럼
 - (1회차) 동매동네 우리 지도 그리기
 - (2회차) 마음박스로 만나보는 우리가족
 - (3회차) 감정 물감주 제작하기
 - (4회차) 그림자극으로 만드는 움직임 워크숍

<https://youtu.be/WHcb3aaZZTo> 4분6초부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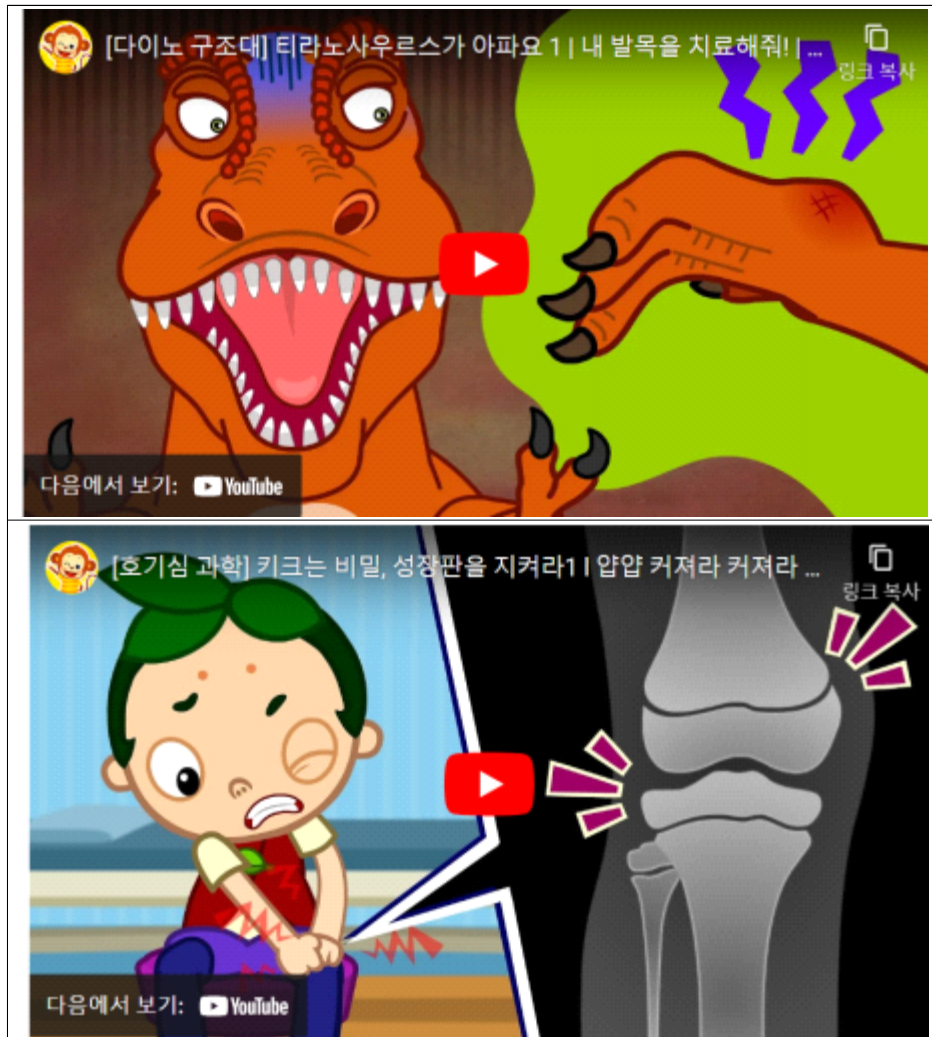
2022-2023 지니키즈 (주)브릭스 외주 -지니키즈 유튜브 애니메이션 2분 30초 영상대본

-----> 성장판 1편 <https://youtu.be/WS6gSimDH2g?feature=shared>

2편 <https://youtu.be/MM1bXdQ8g7Y?si=nDCEATapVcw5vTPF>

티라노사우루스가 아파요 1편 <https://youtu.be/4J3JmB8EBxE?si=fmTfUnS8cpPfcRR9>

2편 <https://youtu.be/EZXkiC0axHl?si=EEvzn9veB-t3i9PP>



강북구 소재 독서교실 강사 2016-2024년

[프로그램명 : 글쓰기 공모전 해봤니? 우리 집 책을 소개합니다. 도캥스하재 영웅찾기]



미아정보문화도서관

2024년 진행 중인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초등 중학
년 독서동아리 수업 포스터입니다.



강북문화정보도서관



비대면 삼각산어린이도서관



그림책 수업 - 그림책방 돌맹이수프



그림책 수업 - 그림책방 돌맹이수프